

성삼 후 14주일(연중 23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최토마스 신부 보혈조력: 정요셉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지헬레나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338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8쪽 집 전 자
†죄의고백 9쪽 다 함 께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집 전 자
주 하느님, 우리보다 항상 앞서 가시며 이끌어주시나
이다. 구하오니,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어,
우리를 언제나 바른길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독서 예제 33:7-11 말 은 이
성 시 시편 119편 다 함 께



- 1 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 그대로 지켜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2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 따라 살게 |하소서.
○ 마음을 다 쏟아 |지키리이다.
3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 그 길을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4 내 마음을 잇속에 기울이지 |않-고
○ 당신의 언약으로 기울게 하소서.
5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 |얻게 하소서.
6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 당신의 종에게 |지켜 주소서.
◎ 영광이 |성부 와 ○ 성 |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로마 13:8-14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마태 18:15-20 말 은 이

설교 토마스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19쪽 다 함 께
†봉헌성가 342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0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2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5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6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27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347장 다 함 께
†영성체후기도 29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
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
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29쪽 집 전 자
†파송성가 387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9월 10일)	다음 주일(9월 17일)
1독서	김소정	최서은
2독서	권용준	최자연
대 도	황선숙	백남진
9월 17일 전례독서	창세 50:15-21 시편 103 로마 14:1-12 마태 18:21-35	
성 가	503 544 497 586	
다음주일 복 사	정선우	보혈조력 채베드로
다음주간 교회청소	<3조> 권순호 황선숙 김운권 홍양금	

(1997-2023 / 교회설립 26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3년 9월 10일 성삼 후 14주일(연중 23주일) · 가해 · 녹색

제27-37호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

오늘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의 인간적 공동체로 겪는 갈등과 긴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오복음의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빚대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오는 교회 내에 있는 직무들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지만,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직무가 있었을 테고, 그 직무에 속한 권한과 책임이 오남용되는 일이 종종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오의 공동체에서는 아마 높은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 아마도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교회도 다른 모든 인간 공동체와 똑같이 흠과 죄가 큰 공동체라고 치부하며 냉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나 똑같이 흠과 죄가 크지만, 어디나 이를 똑같이 다루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마태오복음은 공동체의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 자비와 존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어린이처럼 약하고 소외된 사람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온 공동체가 그를 찾아오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태오복음이 제시하는 자비와 존중의 원리, 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보살피라는 원리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이 가르침에 자신을 비추어 성찰하며 오늘 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공동체가 땅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얼마 전에 베드로에게 일러주셨던 말씀을 여기서 교회공동체를 향해 재차 반복하십니다. 땅에서 죄지은 형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지면 하늘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하느님은 공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와 하느님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마태 18:19) 하늘과 땅이 서로 공명하는 기도는 그러므로 교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땅에서 일어난 회개와 용서가 하늘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을 믿고 마음을 모아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의 기도 안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기도를 매개체로 하늘과 땅이 서로 말을 걸고 응답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그러므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법”과 “신앙의 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마음을 한데 모아 드리는 감사의 성찬례가 곧 공동체의 기도이며, 이 기도를 통해 교회는 세워지고 새로워집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 협동사제 최수재(토마스)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올리야나)

성 십자가의 날 (9월 14일)

십자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에 우뚝 선 역사의 현실과 신학이며, 오늘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십자가 축일은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을 십자가를 통해 기억하는 날입니다. 십자가라는 죽임의 도구가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마련하는 구원의 도구로 변했는지 되새기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와 신학을 잇을 때 그리스도교 신앙도 변질한다는 사실은 경고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폭력과 죽임의 상징을 용서와 화해, 생명의 상징으로 바꿉니다. 역사의 현실에서 거듭되던 폭력과 죽임의 악순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멈춥니다.

이 지점에서 죽은 십자나무가 생명을 품은 십자나무가 되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걸려 있네.” 여기서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 행렬에 참여하여 기꺼이 세사의 질서에 거슬러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제국의 국교가 된 그리스도교에서 십자가는 그 참혹한 역사를 잊고, 종교적 의미만 남긴 십자가 신학으로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여 역사를 사셨던 예수님을 잊거나 그분의 고통과 죽음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신앙과 신학은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한 개인의 내면적 종교심과 신심을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면 중세 교회의 폐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와 예배당 안팎, 장신구나 기도 목주의 십자가에서 여전히 ‘타인’의 아픔과 눈물과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멈춥니다. 그러니 십자가 축일에 우리는 다시 사도 바울로 성인의 고백을 되뇌며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갈라 6:14)

시몬 김성수 <우리는 최고다> 영화제 공식초청

제20회 서울국제 사랑영화제
2023. 9. 14(목) ~ 19(화)

제24회 가치봄영화제
2023. 10. 16(목) ~ 29(일)



교회소식

전례와 사목

성삼 후 절기 전례 곡조

성삼 후 절기(연중절기) 동안 기원송가는 ‘거룩하신 하느님’을 부릅니다. 전례곡조 C곡

알림

성서통독을 위한 문제지 출제 (마태오복음부터)

신약성서 통독을 위해 매주일 문제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교회위원회 보고

- 냉정리교회, 성안나의집 선교 후원 논의
- 교회 홈페이지 제작(김준우 니콜라)

찬양 예배 (매월 둘째 주일)

오늘(주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어린이 예배 (매월 셋째 주일)

9월 17일(다음 주일)에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성서공부 (하반기 개강)

9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주교님 초대 - 청년회와 만남

9월 16일(토) 오후 3시 / 서울주교좌성당, 양이재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버지회 하루 피정 성로

어제(9일) 아버지회는 영흥도 재가노인복지관으로 하루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조준행 신부님의 인도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남부교무구 어머니회 월례모임

9월 14(목) 오전 10시 30분 / 수원교회

남부교무구 권역별(안양권) 회장단 모임

9월 17일(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 안양교회
대상 : 신자회장, 사제회장, 재무위원, 어머니회장, 교회학교 교사

대전교구 제8대 교구장 축성식 및 승좌식

피선 주교 : 김호욱(디도) 신부
일시 : 9월 23일(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대강당

이번 주 외올 말씀 47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필립비서 4장 6절)

지난 주일 통계

■ **십일조 · 월정헌금** 1,160,000원
권순호/황선숙 김동준/이선자 김준우/조장은 박종래 이상헌/최미혜 이윤식/백옥경 최수재/지영주

■ **주일헌금** 353,000원
고미순 김운권 류한신 박선희 백옥경 유군상 이도연 이동우 이서현 이원주 이윤식 임혜지 조준행 지병애 채희영 최순덕 한명숙

■ **감사헌금** 180,000원
김도환 류지민 차준섭/김승숙(범사) 최용옥/윤희진(이사)

■ **특별헌금** 5,170,000원
유군상(나눔의집) 유군상(늘푸른복지관) 권순호/황선숙, 임광호/최숙진(성 안나의집)

■ **교회 차량헌금** 50,000원
최순덕

주간 전례독서(9월 11일 ~ 9월 16일 / 연중 23주간)

	독서	복음
11일(월)	골로 1:24-2:3	루가 6:6-11
12일(화)	골로 2:6-15	루가 6:12-19
13일(수)	골로 3:1-11	루가 6:20-26
14일(목)	갈라 6:14-18	요한 12:31-36상
15일(금)	1디모 1:1-2, 12-14	루가 6:39-42
16일(토)	1디모 1:15-17	루가 6:43-49

✠ 기도해 주세요 ✠

- ◆ **가족과 이웃을 향한 전도**
70명이 주일 성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도귀순 박종래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김병재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 ◆ **새교우(예비신자) 전아영**